

아! 9·28 그날 감격 잊었는가?

9·28의 그 감격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연 알까?

63년 전 북한 공산집단의 불법남침으로 적에게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탈환한 이날!

9.28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되찾은 역사적인 날로써 90일 동안 적 치하에서 고통과 실의에 빠진 서울 시민에게 자유를 되찾게 했으며, 우리 국민에게 정치적, 심리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한 결정적인 날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해병대가 중앙청 옥상에 걸린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그날의 감격적인 장면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처럼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이 보장되고, 안보가 튼튼히 뒷받침 할 때 국가의 번영도 지속된다. 6·25전쟁의 쓰라린 과거를 고탄삼아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아닌 확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에서 우리 군과 유엔군은 적 사상 1만 4천명, 포로 7천명의 대전과를 올렸으며, 반면 아군의 피해는 미 해병대 1사단 2,450명, 한국 해병대 4백여명, 미 육군 7사단 32연대 350여명의 전사상자를 냈다.

◀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해병 2대대 6중대 1소대 박정모 소위(왼쪽)와 최국방 수병



역사의 오늘

1950. 9. 15 인천상륙작전 ‘승전’ 기폭제

1950년 6·25전쟁당시
UN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의 주도로
시작된 인천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된다.

대대적인 포격과 함께 한국과 미국 해병이 월미도에 상륙하기 시작해 2시간 만에 점령한다.

이어서 한국 해병 4개 대대, 그리고 미국 제7보병사단과 제1해병사단이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해 인천을 점령하고 김포비행장과 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인천반도를 완전히 수중에 넣는다.

적전 개시 나흘 만인 9월 19일에는 한국 해병 2개 대대와 미국 제1해병사단이 한강을 건너 공격을 개시하고 9월 20일 주력부대가 한강을 건넌다.

결국 9월 26일 정오에는 중앙청에 우리나라 해병대가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이 완료된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 수복뿐 아니라 부산 교두보까지 연결되는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함으로써 6·25전쟁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서울시 지부 임원 및 지회장들과 기념촬영

‘타성의 틀’ 벗어나 교감 박종길 회장, 서울시지부 초도방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은 2013년 9월 10일 오전 11시 마포구에 있는 무공수훈자회 서울지부를 초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서울지역 지회장들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국 지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부는 현황 보고를 통해 “국가 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수훈자들을 회원으로 더욱 많이 영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지부 회원들 중 매년 약 170여 명의 회원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 200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로하여 타계하시는 분들에게 대책이 없다”고 보고하며 자연의 순리를 말하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였다. 하지만 “무공수훈자회의 역점사업인 장례단 행사를 통해 가시는 분들에게 최대의 예우를 하여 편안히 모시겠다”고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지부 무공수훈자들은 6.25전쟁 참전 용사들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나이는 84세이다.

이어 서울시 지부는 “본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여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방문은 강성원 본부사무총장의 사회로 회장 인사말과 진교준 조직국장의 본회 업무 현황 보고 및 이대섭 사업국장의 장례단 사업 설명 후 안보결의문을 선사한후 초도방문행사가 끝났다.

| 본부 참석자 명단 |

부회장 이태우, 사무총장 강성원, 사업국장 이대섭, 기획실장 조영신, 유족국장 이성길, 본부 조직국장 진교준, 본부 총무국장 김청호, 수행부장 박춘성



박종길 회장 인사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막중한 임무를 갖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대우를 받고 처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몸 바쳐 국가에 헌신한 대한민국 일등 주주들입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우리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전쟁 영웅들의 영예의전당’을 건립하는 일입니다.

본인은 이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단체들은 자체 회관을 짓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 영웅들의 영예의 전당을 짓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공수훈자회는 곧 전쟁의 영웅들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박종국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무궁한 발전과 여러 분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영웅”
‘전쟁영웅들의 영예의
전당을 건립하는 일에
온힘을 주력’



박종국 지부장 인사말

이태우 부회장님, 박종길 회장님, 강성원 사무총장님, 본부 실, 국장님들, 저희 25개 지회장님들과 대의원님들은 서울시지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25년 전에 설립된 무공수훈자회는 그동안 관습과 타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정체된 현상을 보여 왔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취임하신 박종길 회장의 적극적인 활동은 벌써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례단 행사와 무공수훈신문의 창간 등 획기적인 실천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지부 전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회장님의
활력에 부응하여
장례단 행사와 무공수훈신문
적극적으로 지원”

| 서울 대의원 |

강태직(성동구), 김외생(관악구), 선봉규(송파구), 백삼용(성북구), 안치명(도봉구), 이재명(서초구), 이준범(강동구), 장영학(금천구)

| 서울시지부 지회장 |

이종열(강남구), 박서원(강동구), 임광영(강북구), 나명순(강서구), 김기후(관악구), 연규영(광진구), 이상문(구로구), 전병락(금천구), 김진국(노원구), 김영춘(도봉구), 윤상길(동대문구), 반재근(동작구), 안종원(마포구), 류연벽(서대문구), 이해춘(서초구), 김종만(성동구), 이석중(성북구), 김영팔(송파구), 김종식(양천구), 조영길(영등포구), 김영기(용산구), 김홍진(은평구), 손양호(종로구), 문성주(중구), 임병학(중랑구)



강성원 사무총장 사회



진교준 조직국장 현황보고



이대섭 사업국장 사업설명



경기지부 임원 및 지회장들과 기념촬영

“우리의 위상 알리자” 공감 박종길 회장, 경기지부 초도방문

2013년 9월 4일 11시 박종길 회장은 인천지부에 이어 두 번째로 수원에 있는 경기지부를 초도방문했다.

기노영 지부장은 현황 보고에서 “무공수훈자회가 법이 보장된 최고의 보훈단체로 위상을 재정립하여 모범단체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 내의 보훈처 등록 인원이 20,515명인데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회원 6,315명, 유족회원 1,510명으로 38%의 가입률”이라며 “회원들을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 장례단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받는데 노력 중으로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매년 실시하고 있는 6.25 사진 전시회를 지속하여 국가안보 의식을 심어주고 교육 효과를 증대 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무공수훈신문 구독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1차 432명, 2차 272명의 독자가 확보 됐음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건의사항으로는 인원과 예산부족을 호소하며 “31개 지회 중 회원 수에 정비례한 예산이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가 끝난 후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위덕 안산지회장 의견

주차를 시키려면 무공수훈자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시로 관계자들과 시설공단 직원들을 교육시켰더니 이제는 많이 알게 됐다. 주차장엘 가면 ‘몇 급이야?’ 묻는 등 모르는



박종길 회장 인사말

기노영 지부장님, 지도위원 및 대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31개 지회장님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공수훈자회의 발전을 기약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이 자리를 빌려 봉사와 협조를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단체들이 관계부처에 서로 자신들의 회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영웅들의 영예의 전당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 바쳐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기노영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발전을 기약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쟁영웅의 명예전당’
건립을 다시 다짐”



기노영 경기도지부장 환영사

저희 경기도 대의원님들과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지회장님들을 모시고 7,000여 회원들을 대표하여 보고와 인사말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공수훈자회는 법에 보장된 최고의 보훈단체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쁜 일과 슬픈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공동체로 일사불란한 단결심을 갖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의 공동체임을 의식하며 기억하겠습니다. 지부장인 저는 심혈을 기울여 지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보훈단체로
거듭나서
새 회원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사람들이 많더라. 유공자증만 보이면 되게 하라.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부탁한다.

박원청 오산지회장 의견

예산증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우회원들을 위해 더욱 증액 시키는데 노력하자.

김영국 부천시회장 의견

부설유족회에 대해 보훈처에서 존재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설유족회의 지위 격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 경기도지부 참석자 명단 |

| 경기도 대의원 |

곽노연(화성시), 김성택(평택시), 김종성(안양시), 김진회(고양시), 김태원(수원시), 류영근(김포시), 서경식(오산시), 조덕수(안산시)

| 경기도지부 지회장 |

최문홍(가평군), 이범식(고양시), 최맹환(파천시), 황준선(광명시), 임득열(광주시), 이현욱(구리시), 김유채(군포시), 이경순(김포시), 나택주(남양주시), 김용화(동두천시), 김영국(부천시), 유순곤(성남시), 이의철(수원시), 허영범(시흥시), 김위덕(안산시), 이기중(안성시), 정윤희(안양시), 윤지혁(양주시), 변창규(양평군), 이춘우(여주군), 변희순(연천군), 박원청(오산시), 임관철(용인시), 박용담(의왕시), 위성호(의정부시), 허준(이천시), 김홍규(파주시), 국중화(평택시), 서동원(포천시), 이희범(하남시), 이생수(화성시)



안보 결의문 선서



김영국 부천시지회장 의견발표



김위덕 안산지회장 의견발표



박원청 오산시지회장 의견발표



영·호남 자매결연 기념행사장



'화합' 외치는 영·호남 회원들

‘호국 한마음’ 동서 갈등은 없다

제16차 영·호남 자매결연 기념행사 성황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와 경남지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과 목포시가 후원하는 제16차 영·호남 자매결연 기념행사가 지난 5일 오전 11시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 이명재 목포보훈지청장, 조춘태 순천보훈지청장, 이강희 해군 제3함대 부사령관 등 민·관·군 관계자들과 박종길 본회 회장을 비롯한 변재현 전남지부장, 김유성 경남지부장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치러졌다.

박종길 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본 행사로 전남·경남 양 지부 간의 우의가 돈독해지고, 화합 단결된 분위기로 본회 발전과 지역 사회에 공헌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매결연기 전달하고 있다.

또한 “친북, 중북 세력들은 국내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

다”며 “우리 무공수훈자회원들은 호국정신을 재무장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호국안보 정신을 일깨워주는 안보계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주장식 함평군지회장의 경과보고와 정종득 목포시장의 환영사, 변재현 전남지부장의 기념사 및 김유성 경남지부장의 답사로 진행됐다.

또한 박종길 본회 회장의 격려사,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자매결연기 전달식 후 결의문 낭독과 전우가 합창, 만세 삼창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영·호남 자매결연 기념행사는 무공수훈자회원들 간 상호친목과 단결을 구현하기 위해 1998년 시작됐다.

전남지부와 경남지부는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를 하고 있으며,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동서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고명석 기자】



격려사 하는 박종길 회장



축사하는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축사하는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



환영사 하는 정종득 목포시장

보훈단체 회원들 베트남 전적지 순례



호치민 박물관 앞에서 기념 촬영한 일행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
보훈단체회원들 베트남 전적지 순례가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해졌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주관한 이 순례에는 박종길 본회 회장 등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10여 명을 비롯하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단체 등 총 34명이 참석하였다.

일행은 베트남 하노이시

하롱베이지, 호치민시 등 월남전 당시 파월 한국군의 격전지 및 주둔지를 순례하며 격세지감을 느꼈다. 월남전 참전회원에게는 많은 추억이 서려있지만 기억이 머무는 곳.

국제사회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베트남 전적지 순례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우를 찾습니다

해군 31기 김상윤 김상남
(1951년~1953년)

6·25당시 함경북도 길주 명촌 양도섬에서 해군 첩보 활동한 동기를 찾습니다. 살아있으면 꼭 연락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아는 분이 계시어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는사람 신상열

연락처 (031-873-1761)

(010-9389-1761)

“여보, 이것이 내 생명 무공훈장이오!”

— 6·25 전투영웅 남편이 남기고간 마지막 말 —

김옥희 부설유족회 명예회장

군복 입은 채 결혼식 올려

1953년, 그때 내 나이 방년 19세, 여고 3학년생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좀 일찍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우리집 마루아래 낮은 군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군화는 오빠와 같이 휴가를 나온 ‘군인아저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 군인아저씨는 마치 선생님이 반공강의를 하듯 전투이야기를 흥미 있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의 기습남침으로 후퇴했다가 9·28 수복으로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거의 다 갔으나 북괴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1개월 동안 토굴 속에서 갇혀있었는데 뼈와 가죽만 남은 몸에 동상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나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한밤에 두 인민군을 죽이고 그 인민군 옷을 입고 탈출했습니다. 아군 주둔지를 몇 달 걸려 겨우 찾아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로 우리는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인연이 짝을 맺게 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바로 최전방으로 떠났습니다. 그 뒤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시골 조그만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날마다 신랑을 기다렸으나 갑갑 소식이었습니다.

아전병원에 찾아가니...

1953년 8월 3일인가 봅니다. 급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온양에 있는 109육군병원이었습니다. 천막 아전병원이었는데 피비탄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아전침대가 놓여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눈을 다 가리었거나 두 팔, 두 다리가 잘리어 나간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상이군인들의 신음소리는 나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의 명찰이 달려있는 침대를 찾았습니다. 결혼 후 3일 만에 헤어진 남편의 얼굴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몸을 붓대로 감은 군인 침대 앞에서 넋을 잃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나의 남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름 박노현, 계급 상사, 군번 1201329, 소속 수도사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일쯤 지나 그이는 정신이 들었는지 눈을 떴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두 손이 붓대로 감겨있어 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대구 제1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6년간 지냈습니다. 그사이 첫째 그리고 이어 둘째,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육군병원생활 3년째 되던 해, 남편은 저보고 학교를 그만두고 옆에 와서 간호를 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이 옆에서 보살폈습니다. 세

대로 세상을 뜰 것만 같소” 하고 내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못할 노릇만 하고 어린 딸 셋만 당신에게 남기고 가지만...”하며 주머니 속에서 훈장을 꺼내어 내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여보! 이것이 내 생명과 바꾼 우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 생각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제 장한 어머니상을 보여 주자. 우리 세 딸이 “우리 엄마는 훌륭한 엄마야!” 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합니다.

나는 아침 일찍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동장님의 배려로 1972년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수원 새마을 교육(5박6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나는 항상 수수한 차림으로 다녔으며 아침마다 동네 청소를 하는 등 매사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반장도 통장도 하고, 교육이라면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어 받아 생활화 했습니다. 1979년에는 동부녀회장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관내 노인들을 위한 경노사업과 사회봉사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1983년 인천시 부녀대표로 뽑혀 전국 성공사례 발표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주고가신 훈장을 가슴에 담고 세 딸의 어머니로서 ‘하면 된다’라는 확고한 생활관과 작은 힘이 나마 봉사하는 어머니로서 살아온” 나에게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에 남을 도운 자원봉사로 대통령께서 내리시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손에는 남편이 주고 가신 ‘충무무공훈장’을 또 한손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튿날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 나는 눈물을 쏟으며 고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도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막내가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제는 안심하시고 고이고이 잠드소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회관 전임강사(1984년)가 된 나는 근로연수생들이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업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든 자기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며 애국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전쟁이다. 전쟁으로 이 엄마가 겪어야 했던 역울한 나날들이 많았다. 그러나 한 번도 국가를 원망하거나 돌아가신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지금도 우리 남편이 가장 큰일을 하신 분이요 가장 크게 애국하신 분이요 라고 생각하며 굳세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내가 보고 싶으면 이 훈장을 나대신 바라보고 굳세게 살아야 해!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이 나라를 지켰던 용감한 대한민국 국군이었다고 전해주오.



6·25 전투영웅 박노현
계급 : 상사 / 군번 : 1201329 / 소속 : 수도사단
제대 : 1958년 / 입대 : 1947년 2월

월이 흘러 총상은 완쾌되었으나 워낙 심했던 동상만은 낫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그이는 퇴원과 동시 제대를 했습니다.

“김일병! 내손잡아” 잠꼬대

집에 돌아온 뒤 동상 걸린 남편의 발은 점점 악화되고 게다가 정신마저 쇠약해져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53년 7월 26일 한밤에 고지에 태극기를 꽂으려다가 적이 묻어놓은 지뢰를 밟아 온몸을 다친 부하 김일병을 끝내 구하지 못한 한이 남아 잠속에서 “김일병! 내손잡아!”하고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총알이 비 쏟아지듯 하는 전선에서 지뢰가 터질 때 왼손을 내밀어 “김일병 내손잡아!”하고 손을 내밀었으나 포탄이 박 상사(남편의) 팔을 쳐 끝내 김일병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전선에 남겨두고 혼자만 후송되었다며 큰 죄를 지은 듯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수십 년이 지나도 밤마다 꿈속에서 “김일병 내손잡아!”하고 되뇌인 것입니다. 몸이 극도로 허약해진 어느 날 그이는 “여보! 아무래도 이



남편 유지 따라 자원봉사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김옥희 부설유족회 명예회장

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충무무공훈장이야. 내가 죽은 뒤 내가 보고 싶으면 이 훈장을 나대신 바라보고 굳세게 살아야 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훌륭히 길러 너희 아버지는 이 나라를 지킨 용감한 대한민국 국군이었다고 전해주오.”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 이었습니다. 지금도 내손에는 그의 체온이, 내 머리에는 그의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 유지 따라 훈장 받아

그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한 어머니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겠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각박한 시절 혼자서 어린 세 딸을 키우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가졌던 돈을 그이 약값으로 다 쓰고 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나는 월세에 살면서 행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의 권유로 수입이 괜찮다는 다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방마담하면 그리 좋게 보지 않아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머니 직업을 ‘상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엄마의 직업 때문에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을까 해서 다방업을 그만 들까했습니다. 그러나

류근일의

정론직필

이석기 RO의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의 안위에 대해 ‘별것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논거인즉, “정신병자들의 황당한 소리에 너무 과잉대응 할 필요 없다” “주사파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어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몇 가지 사항을 간과한 것이다.

이석기 RO는 우선 절대고립의 단독적 존재가 아니다. 이석기 RO는 지난 5월 12일, 북한이 전쟁을 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럴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의했다.

그래서 나온 분임토의 결과가 총기 마련 방법, 폭발물 제조 가능성, 기간시설 파괴 운운하는 아이디어들이었다.

그들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의 보조적 비정규전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자신들의 대비 태세에 대해 토의한 것이다. 이건 무얼 말하는가?

그들의 존재는 북한이라는 존재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그들은 고립된 단독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의 위험성의 정도는 따라서,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 차원의 ‘대한민국 대(對) 반(反) 대한민국’의 싸움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가늠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류 근 일
전 조선일보 주필

RO의 존재는 비정규전 대비 대한민국의 안위에 ‘별것’ 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위에 대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별것’이다.

국내적으로도 그들은 절대고립의 단독적 존재가 아니다. 정계-관계-교육계-역사교과서-문화예술계-대중연예계, 종교계-노동계-학계-청소년세대-기타 시민사회 각 부문에는, 그들을 적(敵)으로 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동정적(sympathetic)으로 보호하고 키워 온 ‘연대(solidarity)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축은 ‘대한민국

65년’에 대한 이런 저런 폄하(貶下)의 공통분모다. 이런 우리사회 현실 역시 이석기 RO를 결코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이석기 RO와 그 우군들이 구사하는 ‘민족’ ‘평화’ 운운의 기만적 선전 선동 세뇌가 적잖은 대중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문항에 대한 답변에선 이석기 RO에 불리한 비율이 40%대인데, 불리하지 않은 비율이

30%대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대중적 양상 또한 이석기 RO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어떤 논자들은 또,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석기 RO가 준비하려고 한 것은 정규전이 아니라 비정규전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비정규전은 테러-암살, ‘치고 빠지기’(hit and run) 같은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보스턴 테러범들이 사용한 사제(私製) 폭탄에 관해 언급했다는 대목이 녹취록에 나온다. 아무런 정규 군사능력이 없는 보스턴의 삼팔따라지 형제가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간단히 인명을 살상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적어도 숨어서 하는 테러와 시설파괴에 관한 한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상수(常數)가 아니다.

이처럼 북한의 존재, 우리 안의 대한민국 폄하 증후군의 존재, 선전선동에 쉽사리 휩쓸리는 증후의 존재, 그리고 광신분자들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파괴활동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할 이석기 RO의 실재(實在)적 위험성, 또는 잠재적 위험성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무장투쟁 꿈에 빠진 사이비혁명가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 이석기 스토리

추한 물결을 다양하게 드러냈던 통합진보당이 그 마침표를 찍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헌정 사상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첫 국회의원이었다.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정의와 법의 심판 아래 무너졌다. 현재 통합당과 지지자들은 이 의원을 둘러싸고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방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종북(從北) 세력이 국회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다.

유례없는 현역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과연 그는 누구이며 ‘이석기 사태’가 우리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종북의 씨앗, 이석기 사태의 시작
사건의 발단인 28일,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종북핵심 이정희와 이석기

이석기 의원 휘하의 지하조직이 내란을 음모한 혐의를 추적해 그 핵심 10명의 사무실, 자택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이적(利敵)동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마디로 ‘종북 일단의 내란 음모’인 셈이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받는 현역 의원 제1호가 되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지하조직 ‘RO(혁명조직)’ 회의를 열고 “결정적 시기가 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무장봉기를 해야 한다. 방송·공공시설 등을 장악하고 통신·유류시설을 무력화해야 한다”,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확보해 무장하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이에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을 형사단

죄할 수 있는 증거로 상당수의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하루 만에 나타난 이석기, "국정원이 무덤에 파묻힐 것"

전날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잠적했던 이 의원이 하루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미소까지 지으며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 건 국정원의 날조다"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의원들의 저항 때문에 불발로 끝났던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도 이날 재개됐다.

이석기 녹취록 공개, 종북 세력의 실체 드러나다.

30일, 드디어 국정원이 공개한 이석기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정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실은 힘과 힘의 싸움이다. 지배세력에 60여년동안 형성했던 현(남한 정부) 정세를 무너뜨려야 된다"면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또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배세력에 60여년 동안 형성됐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전쟁을 준비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은 북한에 대한 찬양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북한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고 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남한은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로써 종북 세력의 진실과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정희 대표의 농담발언, 말 바꾸며 국민 우롱하다.

사태는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고 있었다. 4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당 대표로서는 최후의 변론을 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 그는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석기 사태'의 핵심 혐의 내용을 두고 '농담'이라고 주장했다.

'130여 명 가운데 한 두 명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 넘겼던 것' 이라는 것이다.

결국 통진당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 대표가 '그런 발언은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종북세력 뿌리뽑자! 각 지부서 '이석기' 규탄대회



무공수훈자회는 지난 9월 5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전국 지부장 및 전남·경남지부회원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북·종북 세력 척결 결기대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결기대회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규탄하는 데 목소리를 높여 이목을 끌었다.【목포= 고명석 기자】



경남지부(지부장 김유성)와 특수임무공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은 9월 3일 오전 창원 통진당 당사 앞에서 국가 내란 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종북세력의 음모를 규탄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요구했다.



충북지부(지부장 이종각)와 광복회 충북지부는 9월 9일 오후 2시 내란음모 이석기종북세력 척결 규탄결의대회를 통합진보당 충북지부 사무실 앞에서 개최하였다.



대구광역시지부(지부장 우기원)는 9월 2일 오후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개최한 내란음모 종북세력 이석기 일당 규탄 대회에 지부장 등 회원 20여명이 타 단체 회원 등 150여명과 함께 동참, 시위를 벌였다.



의정부지회(지회장 위성호)는 9월 9일 오후 의정부역 앞 광장에서 지회 회원 및 7개 호국안보단체 330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북세력 규탄대회를 열었다.

넘어가려는 것이다.

농담이었으니 내란음모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은 국회가 아니라 개그콘서트로 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야말로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장투쟁 꿈꾸는 사이비 혁명가, 마침내 구속영장발부되다.

지난 4일 국회가 내란 음모·선동 등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5일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과는 289명이 투표해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의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헌정 사상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수감된 첫 국회의원이 됐다. 이제 '이석기' 이름 석자는 반(反)대한민국이자 종북 세력의 대명사로 굳어졌다. 그들의 수명은 이미 갈 데까지 간 듯하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이 국민 앞에서 지었던 미소와 여유는 마치 철저히 감정을 숨기고 고도로 훈련된 표정을 연상시켰다.

그것은 마치 '내가 너희보다 윗급이

며 난 너희와 다르다'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하나 둘 밝혀지는 녹취록의 진실과 증거 앞에 이 의원의 표정은 점차 일그러졌다. 그리고 결국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비 혁명가'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아직도 이석기는 자신을 지지하는 종북 세력들을 등에 업고 있다. '내란 음모, 반역 혐의'에 다다른 그들은 만 큼 저항 강도가 예사로울 리 없다. 그리고 당국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와 단죄에 어떤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명석 기자】

“안보교육으로 ‘친북’ 바로 잡아야”

월남전 참전...사병에서 중사 제대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45년 전남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백마부대 30연대 무전 통신병으로 베트남전에 참가했었습니다. 1968년 초에 과월되어 18개월을 근무하고 귀국했습니다. 입대 시에는 사병으로 갔으나 제대할 때는 중사로 제대했습니다. 하시었는데 훈장을 받으니까 중사로 진급 되더군요. 1974년 제대할 당시는 62포병대대 통신선임하사로 있었습니다.”

제대한 후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울산 현대중공업에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전공을 살려 전기 정비 업무를 12년간 하다가 그만두고 고향 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에서 무인기계 경비 사업을 시작 했지요 그 후 통신설비업을 하다가 2006년 그만두고 단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은 무공수훈자 회원들 중에서 아직 젊은 층에 속하고 있는데 지부장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시 지회장으로 있었던 4년 전에 도지부장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2000년부터 무공수훈자회 순천지회장을 맡아서 8년간 연임하고 대의원을 4년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의 건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 회장님도 지회장과 지부장을 하시는 동안 지부회원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무공수훈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전국 회원이 높이 평가하고 무공수훈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라고 판단하여 본회 회장님이 되셨다고 봅니다. 저 또한 회장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본받아 전라남도 지부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지부발전을 위한 이라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목표에 도전하여 부족하지만 지부장으로 임명받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형님같이 모셨던 김형운 전 지부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초 대 석

변재현 전남 지부장

인터뷰 : 신동설 (발행인, 국가안보미디어그룹 상임대표)



교육현장에 전교조 입김 여전 ‘6·25 북침’ 학교선생에게 배워 ‘호남 좌익성향’ 편견...反共인사 많아

지회장 때 업적 인정받아 발탁

모든 일에는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능력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부장님의 과거 공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순천지회장을 하는 동안 인정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순천시와 두터운 협력관계를 유지한 결과 다른 단체보다 더 인정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했고 인정을 받다보니 제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는 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세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무실이 없었던 무공수훈자회의 사무실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실천했습니다.

둘째는 순천지역에 무공수훈자 기념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했고 이것도 실천했습니다.

셋째는 6.25전투와 월남전의 전투경험에 대한 책을 교육용으로 만들어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쉽게도 실천하지 못했습

니다.”

쉬운 일인데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관계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학교에 전교조들이 영향을 행사하고 있더군요.

안보교육은 일 년에 6.25때 한두 번 밖에 안하더군요. 역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윤리, 도덕과목 까지도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가관이나 안보관이 전무한 상태였지요.

저는 국가관을 바로 가져야 한다. 사상을 바르게 갖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알아야 한다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방법으로 반공과 국가와 국가유공자를 주제로 웅변대회를 개최하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맨 처음 이석기 규탄 대회 열어

깜짝 놀랐습니다. 지부장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영·호남

화합행사 중 목포역에서 이석기 규탄 결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서 한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집단이 말하는 주체사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알리는 것이 곧 안보교육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친북성향은 물론 내란음모를 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저희 호남사람들은 옛날부터 민주당 성향이 있는 정치적 이념만 다를 뿐 국가를 위한 일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들입니다. 호남사람들이 좌익성향을 갖고 있다는 편파적 생각을 갖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부장님은 과감하고 용기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남의 안보의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호남지역에는 반공사상이 투철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화를 들겠습니다. 1927년 출생하고 육군창설의 주역이며 여순반란사건을 진압했고 6.25를 참전하신 모 어른께서 서울 자손 댁에 올라갔을 때 길에 친북 유인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워서 자손 댁에 들어가서 “6.25가 남침인데 북침이라고 적혀있다”,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다”라고 손자들에게 교육시켰더니 “그 유인물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북을 보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저들에게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과 같이 못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며 야단을 쳤더니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 들어가지도 않고 내려왔으며 저에게 눈물을 흘리시며 개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무서운 것입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 바로 모셔야

오늘 제가 4시간을 달려서 지부장님을 만나러 온 것이 너무나 보람이 있습니다. 지부장님과 같은 분이 많을

수록 우리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6.25때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내주고 부산으로 가면서 목포를 거쳐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호남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위해 최상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께서 이화장을 방문하여 많은 협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국가를 위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는 영호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부장님이 도화선이 되어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에 모든 국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 위에 바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은 전후 속에서도 국회를 계속 열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국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보다는 잘한 점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기 위해 우리세대들은 부단한 노력과 단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신문 창간 획기적인 일

감사합니다. 끝으로 무공수훈자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는 무공수훈자들에게 대통령도 먼저 경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존립을 위해 무공수훈자들이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을 내려놓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무공수훈자들이 국가를 위해 충

하고 계몽과 교육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공수훈신문의 창간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언론은 곧 힘입니다. 우리들에게 자제 언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힘이

“중북국회의원 이석기는 국민우룡” 영호남 화합행사중 규탄대회 열어

성을 다한 전쟁의 영웅들임을 예우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

강해줬다는 뜻이겠습니다. 무공수훈신문이 있기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재현 전남지부장(중)과 황인태 사무처장(우) 최규산 행정과장(좌)

변재현은 누구인가?

1945년 10월 2일 생

학력

순천제일대학 졸업 (공업전문학사)

수상사항

1968.8 주월사령관 표창

1969.4 인헌무공훈장

1970.5 2사 포병사령관 표창

경력사항

1967.2-1968.2 육군입영훈련 25사71연대

1969.10-74.6.30 2사포병 통신선임하사.

부산병기계창 중사지역

1991.9-2006 한국보안안전공사 동부지사장

2000.4-2009.3 대한민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 순천시지회장

2008.5-2012.12 순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위원

2009.4-2013.3 무공수훈자회 전남 대의원

2013.4.1-현재 대한민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 지부장



전남도민일보 9월 10일자(11면에 보도된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기사

보훈상담

6·25 참전용사·무공수훈자 가족 보훈 혜택은?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민원을 받는 보훈상담센터에 질의응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여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면, 국가보훈처에서 성심성의껏 신속하게 답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연재합니다.

민원내용

아버님이 올해 85세로 6·25 참전용사 및 화랑무공수훈자로와 국가유공자로서 혜택 및(배우자나 자녀) 보훈수혜에 관해 여쭙어 봅니다.

국가유공자로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취업보호/교육보호 등 보훈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검색해보니 6·25참전용사는 가족에 대한 보훈수혜 혜택이 없고 본인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고 무공수훈자는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보훈수혜 혜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떠한 관계로 무공수훈자로서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이것이 궁금해요!
(1577-0606)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1.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귀하께서는 무공수훈자 자녀로서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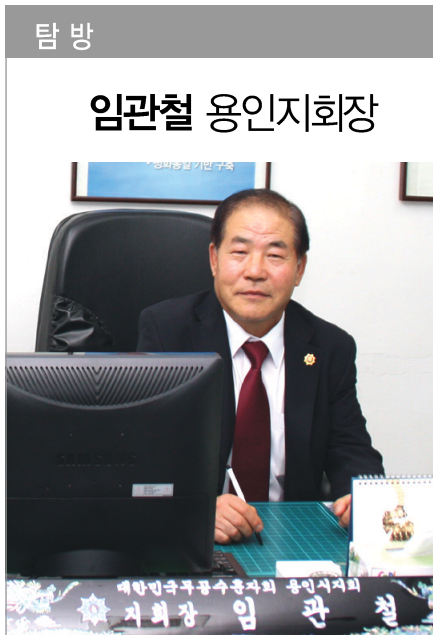
- 취업지원은 보훈특별고용,가점혜택, 기능직공

무원특별채용 추천이 있으며,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신청은 자녀의 경우 만35세까지로 연령제한이 있으며, 그 외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단점의 5%)혜택,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추천은 연령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여 일정소득 이하 자(생활등급 06등급,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3,855천원미만)에 한하여 대학교까지 수업료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생활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전주보훈지청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지원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나 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지원안내/보훈지원안내자료에서 무공, 보국수훈자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공수훈자회 홍보전사’로 자임



탐 방

임관철 용인지회장



임관철 지회장(중앙) 좌로부터 박동학 자문위원, 이용주 자문위원, 김은자 유족회장, 이미화 사무국장

자문위원·지도위원 역임

임관철 지회장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사람인 것 같다.

매사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방문한 기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기자를 맞이하기 위해 원로언론인 이호명, 공군 10전투단 창설멤버인 이용주, 육군특전사 출신 박동학 자문위원들과 김은자 유족회장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만큼 신문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나 의욕이 넘친다는 뜻일 것이다.

임 지회장은 육군 부사관으로 평생 봉직하다가 제대 후 무공수훈자회에 봉사를 자청했다고 한다.

평소 국가관이 투철하고 안보의식이 강한 임 지회장은 용인시지회에 그동안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으로 있었다가 지회장으로 봉사하려고 3수를 했다고 한다.

“일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열성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임 회장은 지회장으로 되고난 후 매사에 열

심을 더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하는 일이 무엇이나”고 묻자 “첫째는 무공수훈자회가 무슨 단체인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무기력” 말 듣지 않게 활동

“무공수훈자들을 알아야 국가 안보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자신을 내세워 회를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했더니 이제는 조금씩 인식을 한다”고 한다.

또한 “무공수훈자회원들이 노력으로 무기력하다는 말을 듣지 말아야겠다”는 취지로 “7월에 이어 이달 초에도 환경 정화 운동과 거리 청소를 통해 나라 사랑과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안보의식도 ‘무공수훈’ 아는데서 부터 회장이 직접 각종 매체 활용하여 관심 끌어

그리고 “6년간 지속하고 있는 6·25 사진 전시회를 시청이나 지하철역과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전시활동을 하고 있다”며 “언론사 대선배인 이호명 사진 기자 출신이 있어서 자료 전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들이 있는 학교가 있어 전시회에 부정적인 곳이 있을 때에도 임 회장은 “안 되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끈질김을 보인 결과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한다.

동석한 김은자 유족회장은 “유족회가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며 “임 회장의 배려로 용인시지회의 정회원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임 지회장은 “유족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고엽제 미망인들은 명단에 있는데 무공수훈자 미망인은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유족회원들의 지위 격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을 표했다.

임 지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용인시 안보 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회가 가장 빛나는 단체로 거듭 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충성!**

취재: 신동철(발행인, 국가안보미디어그룹 상임대표)

임관철 지회장 누구인가

제19대 용인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현재 가족농원 운영)

용인시 새마을협의회 동부동 회장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경기도 지부장

경기 행정사 협동사무소 대표

무공수훈자회 용인시 지회장



6년간 지속하고 있는 6.25 사진 전시회



거리 청소 환경 정화 후 수지구청장과 함께 기념촬영

영예로운 무공 · 보국훈장

- 종류와 등급을 알아본다 -

무공훈장

(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5등급으로 되어 있다.

태극(太極 Taegeug) 1등급인 태극훈장은 대수(大綬 : 받는 이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넓고 큰 띠)로 된 정장(正章)과 부장(副章) ·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으로 되어 있다.

을지(乙支 Eulji) 2등급인 을지훈장은 중수(中綬 : 받는 이의 목에 거는 훈장)

로 된 정장과 부장 ·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충무(忠武 Chungmu) 3등급인 충무훈장은 중수로 된 정장과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화랑(花郞 Hwarang) 4등급인 화랑훈장은 소수(小綬 : 받는 이의 가슴에 다

는 훈장)로 된 정장과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인헌(仁憲 Inheon) 5등급인 인헌훈장은 소수로 된 정장과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보국훈장 (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통일, 국선, 천수, 삼일, 광복 5등급으로 되어 있다.

통일장(統一章 Tong-il) 1등급인 통

일장은 대수(大綬 : 받는 이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넓고 큰 띠)로 된 정장(正章)과 부장(副章) ·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으로 되어 있다.

국선장(國仙章 Gugseon) 2등급인 국선장은 중수(中綬 : 받는 이의 목에 거

는 훈장)로 된 정장과 부장 ·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천수장(天授章 Cheonsu) 3등급인 천수장은 중수로 된 정장과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삼일장(三一章 Samil) 4등급인 삼일

장은 소수(小綬 : 받는 이의 가슴에 다는 훈장)로 된 정장과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광복장(光復章 Gwangbog) 5등급인 광복장은 소수로 된 정장과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훈장 종류

우리나라의 훈장 종류는 크게 11가지가 있다.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등 11개 부문으로 나뉘어 수여된다.

이중 무궁화대훈장은 단일 등급이지만 나머지 11가지는 다시 5등급으

훈장 11개 부문 5등급 모두 51가지

로 세분화 된다.

따라서 등급별 훈장까지 합하면 모두 51가지.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된다'고 서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서훈기준에

대해서는 '공적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한 전투

가 아닌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각 전투에 대해 훈장을 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지 않는다.

훈장은 정부 각부처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의 추천으로 서훈된다. 행정자치부 상훈심의회에서 추천자를 심의하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훈장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전제로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

“죽더라도 한국을 지킨다” 6·25 낙동강 사수 ‘백선엽 한·미 동맹상’ 첫 수상자 워커 장군

9월 30일 시상식… 손자가 참석

올해 제정된 ‘백선엽 한·미 동맹상(賞)’(이하 동맹상) 수상자로 초대 미 8군사령관을 역임한 월턴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이 선정됐다고 국방부가 7월 28일 발표했다. 국방부가 주관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동맹상은 한·미 동맹과 한국군 발전에 기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 시상하게 되며 첫 시상식은 9월 30일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열린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의 군사동맹이 60주년을 맞았음에도 미국 측 인사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이 없다는 인식에 따라 상을 제정하게 됐다”며 “지난 24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워커 장군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워커 장군의 손자인 월턴 워커 2세가 참석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김재창 예비역 대장을 위원장으로 권오성(육군 대장)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잔-마크 주아스(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버나드 삼푸 미 8군사령관 등 현역 한·미 고위 장성과 임관된 국방부 정책실장, 김종혁 중앙일보 편집국장, 박인휘 이화여대(국제학부) 교수, 김종근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구본학 한림대 부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4일 1시간 50분에 걸친 토론과 투표를 거쳐 워커 장군을 선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워커 장군이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점이 높게 평가됐다”며 “특히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등赫赫한 전공과 함께 우리 군과 미군의 칭송을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초대 수상자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889년 12월 3일 텍사스주 벨튼에서 출생한 그는 1912년 미국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3기갑사단장으로 참전해 승리를 거듭했으며, 특히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독일군의 롬멜 부대와 맞서 공훈을 세우고 중장으로 승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조지 패튼 장군이 가장 아꼈던 부하로 평가받았으며 ‘패튼 장군의 불독’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는 이후 48년 맥아더 장군의 부름을 받아 일본에 본부를 둔 미 8군 초대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그러다 50년 6·25전쟁이 터지자 7



초대 미 8군사령관을 지낸 월턴 워커 장군(오른쪽). 왼쪽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워커 장군(앞쪽 군모를 쓴 사람)이 미군 장교들과 지도를 보면서 작전회의를 하는 모습.

**“나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국을 끝까지 지킨다.”
(I will stay here to protect Korea until my death)**

이 말은 워커장군이 낙동강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워커라인’을 설정한 후 유엔군과 한국군을 독려한 말이었다. 당시 북한 인민군들이 ‘워커라인’에 묶여 소모전을 벌이고 있을 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국군이 파죽지세로 북진하여 단숨에 압록강 변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후퇴하여 서울 방어를 위해 일진일퇴하고 있던 1950년 12월 23일 상오 11시, 워커 장군은 전선시찰 도중 보병 6사단 2연대 소속 한국군 스리쿼터와 충돌 전사했다.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에 있는 월턴 워커 장군 동상. 지난 2010년 6월23일 동상 제막식에는 백선엽 장군과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해 당시 월터 사프 한미연합사령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서진섭 한미동맹친선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월 13일 낙동강 지역에 파견돼 “버티느냐 죽느냐(Stand or Die)”라며 방어선 사수 명령을 내렸다. 그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철수건 전선 조정건 어떤 것이든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포항·영천·대구·창녕·마산·통영을 연결하는 이른바 ‘워커라인’의 방어작전은 국군과 연합군 간 최초의 연합작전이었으며 한·미 군사동맹의 시초가 됐다.

하지만 그는 6·25에 참전했던 아들 샘 워커(예비역 대장) 대위의 은성 무공훈장 수훈을 축하하기 위해 50년 12월 23일 행사장으로 가던 중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인근에서 차량이 전복돼 숨졌다. 당시 미국 지도자들은 “워커 장군이 살아있었다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아들 샘 워커(88세)는 고령으로 장거리 여행이 힘들어 손자가 대신 시상식에 참석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워커 장군을 기려 61년 광진구 아차산 자락에 유엔군의 휴양시설을 만들며 워커힐로 명명했다. 주한미군과 유엔군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휴가를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도록 63년 완공된 워커힐은 73년 선경개발(현 SK)에 넘어가며 워커힐호텔로 바뀌었다. [출처 : 중앙일보]

그 아버님에 그 아드님!
父子가 6·25전쟁 영웅

“아버지는 그날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우리 미 24사단을 독려하고 후퇴 작전 중에 큰 전과를 올린 우리 사단에 대한 부대표창과 미국 정부가 저에게 수여한 은성무공훈장을 제 가슴에 직접 달아 주시려고 짚 차로 달려오시다 의정부와 문산 간의 어느 도로에서 후퇴 중인 한국군 트럭에 부딪쳐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와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의 대공세에 밀려 전 전선이 계속 패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처럼 아군이 큰 승리를 했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 아들이라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1951년 12월 23일 이었습니다…”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아버지 월턴 H 워커 대장(중장으로 전사, 사후 대장으로 추서)의 우락부락한 모습과는 달리 멋진 미 육군정장에 네 개의 별이 반짝이는 바나나 모자를 쓴 환청하고 잘생긴 아들 S 워커 미 육군 예비역 대장은 알링턴 미 국립묘지의 아버지 무덤에 한참이나 거수경례를 한 뒤 눈물을 글썽이며 30년 전, TBC-TV 6·25 3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팀과의 인터뷰를 이어갔다.

“이틀 뒤 나는 도쿄의 UN군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불려갔습니다.

사령관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워커 대위! 아버님의 전사를 진심으로 애도한다. 월턴 워커 대장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미군은 물론 미국의 커다란 손실이다. 귀관에게 고 월턴 워커 대장의 유해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임무를 맡긴다.’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각하,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일선의 보병 중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부대는 후퇴중입니다. 후퇴작전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각하는 잘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부하들은 목숨을 건 위험에 노출되어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장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중대에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 월턴 워커 대장의 유해는 의전부대에 맡기십시오. 각하의 휘하에는 반드시 의전 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전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이미 문을 향해 걸어 나가던 맥아더 사령관이 뒤돌아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야’ 그리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군인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 용서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유해를 가슴에 안고 이곳 알링턴까지 와서 바로 이 자리에 안장 했습니다…”

여자도 재미있는 군대 이야기

이 책!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윤용남 (전 합창의장·육군참모총장) 지음

군대는 축구와 더불어 한국 여자들이 싫어하는 대표적 두 가지 대화 주제로 꼽힌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축구와 축구 이야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군대 이야기를 즐겨 듣는 여자들도 많아질지 모르겠다. 윤용남 전(前) 합창의장이 엮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상상미디어)를 읽으며 든 생각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듯 처음 책 표지를 본 나는 '책 소개의 의무'만을 느낀 채 책장을 넘겼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읽어갈수록 의무보다는 재미와 감동에 빠지게 됐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나 '군인' 등에서 풍겨 나오는 낯선 '엄격'이나 '격식' 대신 한국 현대사의 가장 모진 시대를 살았던 윗세대의 삶과 기억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 서 알게 됐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윤 전 의장은 창군 초기부터 베트남전쟁까지 약 30년간의 한국 현대 전쟁사를 기록한 각종 자료와 수기, 회고록을 시대 순으로 책 한 권에 담아냈다. 대중성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군대나 전쟁에 대해 생소한 여성들도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책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한국 현대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시대를 잘못 만나' 모진 고생을 하다 스러져간 필부필녀들의 삶이었다.

어느 겨울날 한 미군 병사는 강원도에서 후퇴하다 수북이 쌓인 눈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눈을 치우고 보니 갓난아기를 안은 채 동사한 알몸의 여성 시신이 드러났다. 이 어머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입은 옷을 모두 벗어 아기를 감싸 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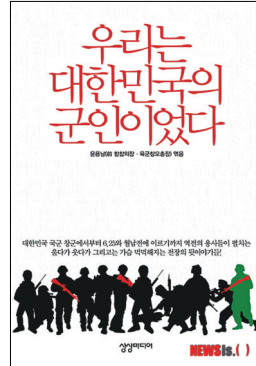
한겨울에 얼어 죽은 것이다. 병사는 여인을 잘 물어주고 아기를 안고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아기가 청년으로 자란 뒤 노인이 된 병사는 '양아들'과 함께 강원도를 찾았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란 청년은 무덤 앞에 무릎 꿇고 통곡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어요!"(p.178, 남신우·미 인권운동가, 건축사)

어떤 장면들은 '개그콘서트'보다도 더 우스웠다. 물론 결코 웃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휴전이 임박한 어느 날 서화리 쌍룡고지 전투에서 적의 공세에 맞선 일선 중대장이 다급한 마음에 통역장교를 거치지 않고 미군 관측장교와 '대화'를 나누었다. "Hey, GI" "Why?" "유(You) 야포 골짜구니 광광." 미군 장교는 주먹을 쥐고 내리치는 중대장의 말을 알아듣고 단번에 골짜기에 포를 지원했다. (p.224, 정용, 'OP에서 일어난 사건들', '625전쟁 증언록II') 6.25전쟁 당시 국군에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병사들이 많았는데, 그중 경상도에서 머슴살이를 하다 주인집 아들 대신 입대한 문삼룡 일등병은 보초를 세워놓으면 "정지, 누구야!"라고 한 다음 "황새, 비둘기"하며 상대방의 압구호까지 큰소리로 모두 말해버리는 부대의 유명 '고문관'이었다. (p.135, 김종민, '대 전쟁')

책을 읽으며 절로 밑줄을 치게 되는 대목도 많다. 그중 하나. 전쟁은 착오의 연속이다. 누가 그걸 더 많이 줄이느냐에 따라 승패는 달라진다.(p.92 채명신 '사선을 넘고 넘어')

* 출처- 뉴스1 : 여인옥 기자



건강습관이 10년 젊게 만든다!

1. 기상후에는 항상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자
5분만 투자해서 기상 후에 간단한 스트레칭만해도 수면 중에 쭉~늘어진 근육과 신경을 찢리릿~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 줍니다.

2. 식사 때는 항상 반찬을 골고루 섭취해주세요.
한끼,한끼 음식을 먹을때도 최대한 골고루 다양한 반찬들을 먹어가면서 영양을 섭취해주셔야 건강한 육체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노래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으아~악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 가슴이 뚫린듯한 기분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조금은 확! 풀리는데요.

이왕이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요? 요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추천해주는 방법 중의 하나로 노래 부르기 추천해주지요.

4. 음식을 씹을 때 소가 여물 먹듯이 최소한 1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어요.

대충 씹고 삼키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얼마지나지 않아 소화불량으로 고생할 수도 있어요. 한번에 10번 이상은 씹어서 드셔야 위 부담도 안가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된답니다.

5.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외우기
머리는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가 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두뇌운동으로는 전화번호 외우기가 제일 좋은 거 같네요. 오늘부터 하나씩 재미삼아 외워보세요. 뇌가 젊어집니다.

6. 잠잘 때 오른쪽 옆으로 누워 새우잠을 자도록 하세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엄마뻗속에 있을 때의 자세로 자보세요.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일단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금방 숙면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7. 샤워 후에 곧바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내지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나면 곧바로 마른 수건으로 온몸의 물기를 닦아내고 옷을 사~악 갈아입고 욕실에서 나옵니다. 샤워 후에 수건으로 바로 물기를 닦아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말리든지, 아니면 가운을 걸치고 물기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게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8. 자주 가족들과 스킨십을 해주세요.

가족끼리 스킨십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주 자주 서로에게 스킨십을 하세요. 부부들도 스킨십을 자주 해주는 게 남들보다 10년은 젊고 건강하게 사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하는 어르신의 두뇌는 건강하다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인터넷 서핑을 해라.

인터넷 검색이 노년층의 기억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제까지 퍼즐이나 바둑 등이 뇌(腦)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많았으나 인터넷 검색의 뇌 활동 촉진효과는 처음 발표된 것이다.

미국 UCLA대학 연구팀은 "인터넷 검색이 독서보다 효과적으로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들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인터넷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65세~76세 사이 노년층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동안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MR로 촬영했다.

이들 중 절반은 인터넷 검색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전혀 사용한 경험이 없었다.

실험 참가자들의 연령, 성별, 교육 정도에는 차이가 없도록 조절했다. 그 결과, 독서를 하는 동안에는 뇌에서 독해와 언어능력을 담당하는 후두엽의 활동이 활발했으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동안에는 전두엽을 포함해 더 많은 영역이 광범위하게 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인터넷 검색에 익숙한 사



람들일 수록이 같은 효과가 뚜렷했으며, 처음 인터넷을 접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활성화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책을 읽을 때는 활성화 되지 않는 뇌의 부분들을 인터넷검색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노년층의 뇌기능 저하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의 든든한 건강버팀목!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어떻게 이용할까?

□ 주소/대표전화

134-791 서울시 강동구 진랑도로 61길 53
대표전화 : 02-2225-1111
진료예약 : 02-2225-1234

□ 이용안내

- 사업개요 (5개 보훈병원 및 보장구센터 운영)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 및 재활
 - 고엽제검진 및 진료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 상이등급분류 검진
 - 지역주민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

• 진료체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진료는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실시
- 보훈병원과 원거리 거주자의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위탁진료 실시
- 특수질환자 등은 전문병원 진료위탁 의뢰

• 진료대상

구 분	대 상	진료비
국비 환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환자, 경상이자 ※ 신규 7급 상이자는 상이처의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20% 부담 (12.7.1 시행)	모든 질환 승인 상병
감면 환자	6.25참전 재일 학도의용군	면제
	국가유공자 (무공, 보국수훈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60% 감면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60% 감면
	창군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등	50% 감면
일반 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등	

• 위탁진료 운영 (위탁병원 지정 진료편의제공)

구 분	대 상	진료비
지정 위탁	국비 환자	보훈병원과 원거리 거주자 → 인근병원 지정
전문 위탁	국비 환자	보훈병원 자체 진료 불가능 → 전문병원 진료의뢰
응급 진료	국비 환자 (경상이 제외)	응급상황 시 → 전국 의료기관
통원 진료	국비 환자 (경상이 제외)	위탁지정 병원에 진료과목이 없을 경우 등 → 인근병원 외래 진료

※ 위탁(근접위탁) 지정병원 소개와 현황 다음 호에 게재

1. 중앙보훈병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1000여 병상 규모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의 종합의료기관입니다.

2. 중앙보훈병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보훈병원등과 전국적인 보훈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국가유공자와 아울러 일반 시민의 보건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중앙보훈병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국내 유수의 의료시설과 국가유공자의 신체기능회복과 퇴화방지를 위한 특수시설의 장비를 갖춘 재활의료센터와 보장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장구센터 운영

- 국가유공자 및 일반장애인의 각종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중앙보훈병원 산하 보장구센터 및 지방보훈병원 분센터 운영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 군인,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장애)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 분류 신체검사
- 국가유공(상)자중 상이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 재분류가 필요한 자의 신체검사

• 고엽제 검진

- 월남전 참전,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또는 종군한 자의 고엽제 피해 검진
- 국국내 비무장지대 (DMZ) 근무(64.7월 ~ '70.7월)자의 고엽제 피해 검진
- 고엽제후유증 판정자의 2세환자 검진

□ 예약안내

• 방문예약

원무과 접수창구 방문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진료의뢰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서류 제출 → 진료예약증수령 → 귀가 → 진료 예약일 내원
- 원무1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 원무2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특수임무수행 공로자,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참전유공자, 창군·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일반 환자 등

• 전화예약

중앙보훈병원 전화예약실(02-2225-1234)로 전화 → 진료예약 → 진료 예약일에 내원

• 인터넷예약

www.seoul.bohun.or.kr에서 인터넷예약 신청 가능

□ 진료시간

평일: 접수 - 오전 08:00 ~ 오후 17:00 까지 진료
진료 - 오전 09:00 ~ 오후 17:30 까지 진료
응급실: 응급환자는 24시간 계속 진료
토/일 공휴일: 진료하지 않음.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5호선 둔촌역 1번출구 약 1.5km 도보 15분 거리

• 버스 이용시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상내역, 5호선 강동역에서 351번 버스를 타고 보훈병원앞 하차하면 도보 5분 거리

• 셔틀 이용시

셔틀버스 운행 시각표를 참조해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지원팀 신중영 (02-3438-3143)

- 중앙보훈병원 대표전화 (tel 02-2225-1111)
- 부산보훈병원 대표전화 (tel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대표전화 (tel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대표전화 (tel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대표전화 (tel 042-939-0111)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격조높은 장례토달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준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유공자, 향군정회원, 우대!

□ 편리한 장례서비스

- 고인을 위한 장례용품 / 상주용품일체 제공
- 장례절차, 사망신고 등 행정처리 안내
- 고인 운구를 위한 앰블런스, 리무진, 버스 제공
- 전문장례지도사 및 장례도우미 파견
- 국가유공자, 향군정회원, 우대
- 가입후 누구에게라도 양도, 양수 가능
- 국립묘지 안장업무 안내 (대상자에 한함)

□ 중요정보고시

1. 중도해약환급금 및 환급기준
가. 회원약관 제15조 제 3항에 의함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 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액 100% 환급
2. 소비자 분쟁시 분쟁의 해결기준
•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3. 주요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 본사 홈페이지(www.korvalfamily.com) 상품안내 참조
4.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 및 공인회계사 감사여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
96,931,109천원	138,349,992천원

※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상조관련자산보유비율 142%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 삼일회계법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상조회

무통 080-412-4290 팩스 02-412-7290

♣ 알려드립니다 ♣

- 각 지부, 지회 소식은 주재기자(지부 사무차장)를 통해 보내주시면 성의껏 보도하겠습니다.
- 전우 찾기 등 기사 내용을 제보해주시면 검토 후 보도하겠습니다.
- 전쟁 체험기, 수기, 회고록 등을 보내주시면 정리하여 게재하겠습니다.
- 광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무공수훈신문은 회원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사 제보 전화 : 1855-0415, 02-496-0155

팩스 : 02-496-0156

이메일 : sds1557@hanmail.net

계좌 : 국민은행 018301-04-161987 (예금주 : 국가안보미디어그룹)

담당자 : 고명석 편집팀장

무공수훈신문 편집국

무공수훈신문은 독자가 만든다

박종국	하수덕	김대식	이양택	전보영	이영호	손양호	이인학
이종영	박진구	김택영	이연식	신호균	김세창	김재호	채공순
차용복	김재한	김명수	이원희	김재영	정영섭	최기성	최기성
장하현	김효순	김병국	이유춘	임창근	최덕준	박성준	박양섭
정재화	김봉두	김복남	이인복	김왕원	차대호	곽해오	김선홍
박석현	서종만	김산복	이종남	손영준	조강수	김희수	윤영환
박구은	심상연	김성초	이종철	박병주	정재용	한운모	장흥인
한봉기	최해곤	김세영	임영재	신순애	김상호	박제순	권이상
박완규	장문구	김순종	임재명	박천마	김창구	임충용	이평근
권봉래	조성용	김영중	정금식	김영자	황양희	윤대성	박종관
송춘호	김종섭	김용관	정대훈	강기창	성병기	백성흠	서주호
박종원	최상현	김원택	조종연	고석호	민원식	이효교	문병재
박선규	김광식	김재현	차진숙	이용택	송호석	송호석	황성주
김오문	이상태	김주신	하정남	위수웅	박춘성	고용환	위방환
변강연	이정우	김주철	한갑중	이호진	박병섭	박상수	김기선
이진희	심형무	김중환	홍재원	노동래	김 만	육종관	최순민
박병보	김경희	남철우	황금주	박홍섭	문안선	박승욱	이영흠
박병화	김철언	류성록	황창근	김영남	김구열	유영숙	장홍순
이홍성	박완경	문부원	윤상길	권종하	이철성	장금성	장홍순
한용직	이상재	박귀석	피봉수	홍승표	이광연	장병상	장홍순
조진성	한광식	박두희	박병기	정형기	김창호	음정호	장홍순
인정식	김규환	박병갑	정형섭	윤동현	이선자	오영수	장홍순
김용순	임완준	박병곤	김진구	한일용	사일진	박사석	장홍순
유종분	이성배	박성일	김확준	김정호	이종기	박장수	김기성
민갑조	복영수	박소금	김종국	박재성	이기정	박준혁	이건복
최순남	서승택	박수길	김종길	고일성	안광원	마장순	조용복
노득환	김선호	박영웅	강우석	윤석만	박덕목	김종복	심종섭
진순길	이순재	방응선	조일제	이용수	박이섭	함종일	장동호
이재봉	김명섭	백경현	홍수원	박승모	서경열	최희진	최광규
김재윤	이주성	백인숙	홍종익	윤정용	강일수	남영태	류대희
김기순	전신리	서정관	함주호	김해진	김영두	오계순	심현천
황충사	김효태	석진학	정성중	김길	김재현	최종만	박용석
김병운	오현규	손장현	이상락	김기은	박무영	박문홍	이경수
이장순	김백환	신영호	진영호	박수화	박수영	김정중	박수영
김간난	강우봉	신일순	김영중	배운조	박창석	이종만	전대식
오옥경	신상근	심성길	김준배	서종주	박창현	유정희	황기봉
윤옥환	권용환	염종관	염종훈	송주복	박창현	김창석	김진태
송복래	김웅주	염효훈	강용운	유성중	이우문	이기선	윤용길
나경별	차희열	오윤수	이현영	유시문	이호일	강대성	최창득
이숙진	이정무	오장석	이병환	윤 용	정창훈	권순식	김선영
문애자	강주용	오정택	하창식	임석훈	정해상	윤정식	조옥선
김수현	이식순	오종록	염순철	임종각	조두식	배수철	김옥화
김민자	최근희	유두환	조규영	구자선	김현경	허준	김춘선
정옥원	김우식	유종대	정석균	김은자	김현기	권태삼	김오예
서수석	안용석	윤기현	조춘희	노순애	함석진	김상운	김인년
김동복	최필규	윤유순	이규봉	유정옥	김금순	김관진	김인자
양석호	이형태	박선섭	이준자	이준자	황기홍	최경순	나옥진
김희갑	이상연	윤태삼	최수남	정일자	박태진	이해영	김택순
안소수	양승준	윤택환	염주양	김종만	김동주	이세환	이계순
전홍길	김진국	이경영	최석순	이석중	김종식	이재섭	용명자
한삼태	고지직	이금수	박옥란	진영수	조영길	이준식	조신자
송석근	권복원	이병삼	염기화	강문구	김상유	장재신	

알림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전승기념 및 전몰 군 · 경 추모행사

일시 : 9월 23일(월)~9월 24일(화)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빨치산 토벌 작전 기념관

일정 : 9월 23일 오전 8시 : 서울 1호차 용산전쟁기념관 출발

오전 11시 30분 : 경남 2호차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출발

오후 12:30분 : 임시총회

9월 24일 오전 11시 : 기념행사

문의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02-790-9653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지정업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현대 휘장(現代徽章)!

대표 이상수

전화 02)793-9939 / 773-6580

팩스 02)773-6581

핸드폰 010-8731-9939

100-095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7-3 (남성빌딩201호)

농협 094-12-008822 우체국 010025-06-001928



규격과 선 하나도 오차가 없는
정통 휘장만을 고집합니다



무공 · 유공, 참전지들의 조끼, 모자,
배지, 목걸이, 넥타이, 모표,
국가유공자 휘장, 문패, 수첩,
참전휘장, 월남참전 기념메달,
경축기, 근조기

6.25참전 월남참전 휘장류 문패
(특수금장 6cm * 15cm)
참전 특수액자

추석특별선물

건강식품 특별 할인 판매



참흑마늘진액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건강식품 마늘
인생을 숙성시킨 것이 홍삼이라면 마늘을
숙성시킨 것이 흑마늘입니다. 100% 국내산 마늘로
기력보강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1세트 : 70mlX60포X3박스=180포(3개월분)
소비자가 298,000 ⇒ 할인가 158,000원



참녹용보위골드

옛부터 보약하면 녹용이죠
녹용은 옛부터 가장 널리 알려진 보양식품으로
몸을 튼튼히 하고 체력보강에 좋으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보양식품입니다.

1세트 : 70mlX60포X3박스=180포(3개월분)
소비자가 298,000 ⇒ 할인가 158,000원



6년근 참홍삼골드

고품격 홍삼을 진하게 마셔요~
홍삼특유의 진한향과 맛을 담은 고품격 진액입니다.
원기회복 · 지양강장 · 면역력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 홍삼캔디 (200g) 1봉지 증정

1세트 : 70mlX60포X3박스=180포(3개월분)
소비자가 298,000 ⇒ 할인가 168,000원



참심마니 산삼100

산삼의 기(氣)를 드셔보세요~
산삼의 화귀성과 고가력 때문에 쉽게 드실 수 없는
천종산삼을 원료산삼으로 배양해 생산한
고품격 제품으로 산삼의 기(氣)를 드셔보세요.

1세트 : 70mlX30포X4박스=120포(2개월분)
소비자가 396,000 ⇒ 할인가 196,000원

● 제품 먼저 받아보시고 대금은 아래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2세트 이상 주문시 10% 추가할인 또는 1박스 더 드립니다.

보훈건강선물센터 (02)720-4691~3

제조원 | 경북농축산영농조합

입금
계좌

농협 100124-56-035852
국민 387-21-0180-012

황인호
황인호

011-743-2272

중국문서와 자료로 본

중공군의 한국전쟁

휴전 60주년을 맞아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 경위를 중국 자료에 의해
중국 측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가미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

중국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 언론인 박실 저작



도서명 : 중국문서와 자료로 본 중공군의 한국전쟁
저자 : 박 실
신국판 / 360페이지 / 무선제책 / 17,000원



저자 박 실

3선 의원
제19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전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전 한국기자협회장
현 (사)대한언론인회 이사

목 차

1. 북한 인민군의 주력이 된 팔로군의 조선인들
2. 김일성의 만주 교두보 확보
3. 소련, 마오의 승리 보고 태도 바뀌
4. 김일성이 40여 차례나 스탈린 줄라
5. 김일성 계획에 시큰둥했던 중공
6. 중공의 보위국방 제1차 회의
7. 한반도에서 마주칠 뻔한 마오쩌둥과 장개석
8. 스탈린 쫓기는 북한 정권 만주로 소개 지시
9. 박헌영과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회담
10. 마오쩌둥, 급히 평덕화이를 불러올리다
11. 흑해연안의 중소 회담
12. 마오쩌둥 아들까지 참전
13. 평덕화이 광산에서 김일성 만나
14. 중공군 야음을 타고 도강
15. 중공군의 제 1차 공세
16. 1, 2차 공세에서의 경험 축적
17. 마오의 아들과 장군의 아들들
18. 평 사령관 38선 월경 거부
19. 평덕화이가 당면한 난제
20. 중조연합사령부와 중공군의 서울 재입성
21. 진격 멈춘 평덕화이, 소련 고문들과 충돌
22. 중조연사의 확대간부회의
23. 적의 전술 뚫어본 리지웨이
24. 저우언라이와 후방보급 임무
25. 중공군의 대민 정보 선전 활동의 강화
26. 제4차 공세와 서울 후퇴
27. 지평리 전투서 중공군 첫 번째 대패
28. 평덕화이 귀경 직보와 전략 변경
29. 백만대군 동원한 제5차 공세 개시
30. 땅 따먹기와 살육전의 대결 - 사창리 전투
31. 국군의 패주와 중공 1개 사단의 와해
32. 5차 공세의 실패와 휴전의 모색
33. 마오, 휴전회담 지구전 방침 내비쳐
34. 정전에 대한 마오와 스탈린의 생각
35. 정전 부정적인 스탈린 설득작전
36. 중공과 북한 측의 회담준비
37. 회담 준비 그리고 전력강화
38. 신경전으로 시작된 양측 첫 접촉
39. 유엔군 측의 제안
40. 38선 경계 두고 줄다리기 시작
41. 중공군의 6차 공격 변경과 유엔군의 여름 반격
42. 판문점으로 회담장 바뀌어
43. 개성을 두고 벌인 밀고 당기기
44. 중소 공군기 출격과 교살 작전
45. 강도구축과 생화확전 전망
46. 또 하나의 장벽 포로 문제
47. 클라크의 첫 공세
48. 정전 문제로 공산권 수뇌 회동
49. 아이크의 등장과 스탈린의 퇴장
50. 마지막 힘겨루기와 정전의 성립

정신이 살아 있는 출판



주문 : 1855-0415 해병대전우신문

·무공훈장·보국훈장 받은사람 신문·나라사랑 알리기 신문

창 **축** 간

무공수훈신문

무공수훈신문은

- * 무공수훈자들의 호국정신을 보도한다.
- * 조국을 위해 몸바쳐온 회원들의 자랑스런 이야기를 보도한다.
- * 호국 영웅들의 공지와 명예를 심층 보도한다.
- * 후손들에게 무공수훈자들의 호국정신을 교육시키며 알린다.
- * 무공수훈자회의 하는 일들과 회원들의 소식을 전한다.
- * '특별부고'란을 신설하여 조국을 지키다 가신님을 기억하게 한다.

구독료 : 매월 3,000원 (연간 36,000원)

발행처 : 국가안보미디어그룹

간 별 : 격주간 (매월 2회)발행 타블로이드판 (본지크기)

페이지 : 16면 (칼라8 흑백8)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에 한하여 월 2,000원 (연간 24,000원)으로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구독신청 : 무공수훈자회 소속지회 또는 1855-0415

계좌안내 : 국민은행 018301-04-161987 국가안보미디어그룹